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021년 부활절 일정
3월 28일 - 종려주일, 주일 예배 중 성찬식
3월 29~4월 3일 - 고난주간
4월 4일 - 부활주일
- 고난주간 특별사색 기도회(3/29~4/2)
일시: 3/29(월)~4/2(금) 시간: 오전 6시부터 10분 간 진행
주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고난주간
: 막11:12~26 월요일의 행적들 화: 막11:27~12:44 화요일의 행적과 말씀들
수: 막13:1~14:11 화요일의 행적들(2) 목: 막14:12~42 목요일의 행적과 말씀
금: 막14:45~15:47 금요일의 행적과 말씀

Zoom Meeting ID: 310-666-7967 P/W: 728243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3/28		최홍만		
04/04	김유순	권이남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 본문: 마가복음 14장 1~11절 제목: 장례 준비
기도제목: 1.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2. 교회의 사명은 먼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장례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예를 갖추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 1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특히 14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11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11절 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고자하는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3~9절까지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11절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1. 유대 종교지도자들 -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먼저 언급된 자들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이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유대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이토록 어렵게 된 이유는 바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임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심한 말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될 때마다 더욱 분노하여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지적하실 때, 자신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 예수님의 제자들 - 예수님의 죽음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또한 분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에 그곳에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여자가 지위가 형편없었습니다. 12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날자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왜 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감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저 무식한 여자가! 혹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광신도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저 여자가 뭘 모르고 저런 식으로 낭비를 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식한 여자여!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그 정도 향유면 삼백데나리온 정도의 큰 금액인데, 그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무식한 여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자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3. 향유를 부은 여인(마리아)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아야 할 내용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시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음을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어떤 비유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할뿐만 아니라, 아무런 분위기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는 말

오늘 말씀에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과 태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전사자 장병들을 최선을 다해 예우하며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며 예우를 해 드렸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감사와 최송한 마음 고마움 마음을 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41장(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8번 (시편 종려주일)	
찬 송 Hymn	132장(호산나 호산나)	
기 도(Prayer)	1부: 이경희 권사 2부: 최홍만 장로	
성 경 Scripture	마가복음 14장 1~11절	
설 교 Message	장례 준비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눕니다	
▲ 찬 송 Hymn	346장(값비싼 향유를)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